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 은 경¹⁾

박 성 연²⁾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및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Mean=17.4 yrs; SD=1.75),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목표지향적인 집단’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이론모형에 대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라 AMOS를 이용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목표지향적인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의 경우는 어머니의 영향력 대신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아버지 및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형성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자아정체감, 심리적 통제,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자료의 일부임.

1)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연구원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E-mail : psy@ewha.ac.kr)

I.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발달과 함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므로 청소년들은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자신과 그들이 속한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점차 독립적이 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 성역할 및 이념을 찾아내야 하는 도전적인 과업들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Erikson(1959)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청소년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보고 있다. 성공적인 자아정체감 발달은 이후의 심리적 건강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결혼이나 직업을 통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성취하기 위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수치심, 자아존중감의 결여, 소외, 자율성 상실 등의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거나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시켜 반사회적 집단, 불량집단, 반사회적 영웅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며, 범죄, 비행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후에 성인기의 발달과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이은희, 정순옥, 2006).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 한편, 상급학교 입시나 학교 성적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은 자율성에 대한 자신의 욕구와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자아정체감을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헬리콥터 부모’를 넘어 아예 직접 과제를 해주며 자녀의 교육을 도맡는 ‘매니저 부모’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자립심을 기르지 못한 ‘캥거루족 자녀’들의 모습으로 확산되고 있다(‘매니저맘’ 시대 ‘헬리콥터 맘’ ‘매니저 맘’으로 진화, 2011).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심리적 성숙은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시기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서도 청소년들은 진정으로 개인적 가치와 자아정체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 발달이론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은 일반적으로 사춘기 전후의 방황과 갈등을 내포하는 역할혼미로부터 부모에게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방향과 갈등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체감 유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서의 자기를 탐색해가는 정체감 유예, 그리고 자아의 통합과 연속성을 갖는 정체감 성취의 순서로 발달하게 된다(김형태, 1989). 그러나 자아정체감 지위의 발달은 반드시 자아정체감 혼미로부터 유실, 유예를 거쳐 성취해내는 순서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혼미, 유실, 성취, 혼미의 순으로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Al-Owaidha, Green, & Kroger, 2009; Marcia, 1993). 또한 긍정적인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유예-성취-유예-성취라는 양상이 있으며(Archer, 1992) 정체감이 성취된 후에도 계속 이러한 순환은 생을 통해 반복된다.

Erikson(1959)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발달은 그들이 이전까지의 심리사회발달 단계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진다. 즉 청소년기 이전까지의 발달 단계인 영아기의 신뢰감, 걸음마기의 자율성, 유아기의 주도성, 그리고 아동기의 근면성의 발달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불신감, 수치심, 죄의식, 열등감은 취약성으로 작용하게 되어 자아정체감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강조하여 왔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적으로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아청, 이승국, 2000; 이강이, 2002, Adams, Dyk, & Bennion, 1987; Berzonsky, 2004; Sartor & Youniss, 2002). 반면에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며 자녀에게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통제를 행사하는 독재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탐색을 억압하여 정체감 유실 상태에 이르게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부모의 독립심 격려 부족은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선택을 저해하게 함으로써 정체감 유실을 겪게 한다. 더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자아정체감 유실 지위에 있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통제적인 부모와 극도로 밀착되어 있어 부모로부터 언제든지 거부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부모의 권위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갖지 않거나 부모와의 개별화나 독립된 정체성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Luyckx, Soenens, Vansteeniste, Goossens, & Berzonsky, 2007). 결국,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Barber, 1996, 2002; Vansteeniste, Zhou, Lens, & Soenens, 2005),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적 자아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며, 앞으로의 계획과 가치, 신념 등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또한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청소년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재평가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을 깊이 있게, 또는 다양하게 탐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성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순희(2003)에 의하면, 아버지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의 감정이나 의식에서 동일체적 친애관계를 의미하는 부자 유친성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연구에서도 오직 아버지와의 일체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정체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등의 자아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명선, 문은미, 2009). 이외에도 인터넷 중독 등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청소년들과 같이 특히 자아정체감이 혼미한 청소년집단의 경우, 아버

지의 통제적인 양육으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전춘애, 박철옥, 이은경, 2008).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해 볼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은희와 정순옥(2006)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지만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모두 고려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확립에 실패한 청소년은 자기회의, 역할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게 되고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울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 우울성향을 갖게 된다(Lee, 2003). 따라서 자아정체감이 혼미나 유예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취나 유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우울 점수가 더 높다고 보고된다(정옥호, 1996). 한편 Erikson (1968)이 강조한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 발달은 청소년의 최적의 적응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자아정체감을 성취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고(Mruk, 2006), 내적 통제 등 보다 더 적응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

며, 높은 수준의 자아발달이나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Hamer & Bruch, 1994; Marcia, 1967). Marcia(1967)의 정체성의 지위를 입증하는 연구에서도 정체감을 성취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보에 상처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체감이 유실 지위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 정보에 상처를 쉽게 받으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알려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감은 또한 서로 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Soenens, 2008; 이은경, 박성연, 2010; Soenens & Vansteenkiste, 2007; Soenens, Park, Vansteenkiste, & Mouratidis, in press)에 의하면 자율성이나 독립의 요구가 강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결을 떠날지 모른다는 염려, 즉 분리불안으로 인한 심리적인 통제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의존적인 성향과 우울을 경험하게 한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며 간섭적인 행동을 하는 성취지향적 심리적 통제는 자녀로 하여금 자기비하나 자기비난을 하게 함으로써 우울한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존적인 행동으로 인한 우울성향이나 자아비난적 우울 성향은 각각 무기력을 특징으로 하는 우울이나 또는 죄의식이나 부정적 인지구조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우울을 유발한다(손보영, 정남운, 2006; Blatt, 2004). 즉 우울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 낮은 가치감을 느끼며, 인지적으로 왜곡하여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를 하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해 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은 각각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변인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인 사이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우울한 경험을 많이 하게 하여 만성적으로 우울한 성향을 갖게 하고, 이러한 우울성향이 우울로 이어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은경과 박성연(2010)의 이론모형이 자아정체감 지위 4가지 유형(성취, 유예, 유실, 혼미)에 그대로 혹은 다르게 적용되는지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지위 유형을 분류한 후,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가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2.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관계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 학년과 대학생 1, 2학년 총 458명(남: 47%, 여:53%)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10대 뿐만 아니라 20대 초기인 대학생들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를 재조정하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성취해야 하는 발달과업에 직면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Adams, Berzonsky, & Keating, 2006).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평균연령은 17.41($SD=1.75$)세이며,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각각 48.72($SD=3.83$)세와 46.00($SD=3.72$)세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약 65.7%가 자기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을 중산층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부모의 심리적 통제척도와 청소년의 우울한 경험, 우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척도는 청소년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척도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Bennion과 Adams(1986)의 Revised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EOM-EIS II)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EOM-EIS II는 직업, 종교, 정치 및 철학적 생활양식 등 4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이데올로기 정체감(ideological identity)과 우정, 이성교

제, 성역할 및 여가 활동 등의 4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대인 정체감(interpersonal ident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EOM-EIS II는 전체 8개 영역 각각과 관련된 8개씩의 문항 총 64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8개 영역 각각에는 Marcia(1967)의 정체감 지위 분류인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예,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의 4가지의 유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정체감과 관련된 내용 중 이성교제와 성역할 문항이 주로 남녀 테이트와 결혼생활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나라 문화와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이데올로기 정체감만을 선택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정체감 지위를 분류하였다. 각 유형의 예를 들면, 우선 정체감 성취는 ‘나는 신념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았고, 지금은 나 자신만의 신념이 무엇인지 안다’로, 정체감 유예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일이 내게 적합한지 알아보고 애쓰고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체감 유실의 예로는 ‘바람직한 인생관에 대한 내 생각은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므로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를 못 느낀다’를 들 수 있으며, 정체감 혼미의 예로는 ‘내가 특별히 따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 없다’의 내용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Bennion과 Adams(1986)는 EOM-EIS II 척도문항의 Cronbach's α 신뢰도를 .58~.80, Balistreri과 Busch-Rossnagel, Geisinger(1995)는 .80~.86,

Bartle-Haring, Brucker 및 Hock(2002)는 .75~.84로 보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행우(2001)가 .55~.80, 전지연(2006)은 .74~.87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정체감 유예는 .58과 .55의 낮은 내적 합치도 계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예 지위 척도 문항의 부적절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예 지위의 본래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유예 지위가 관여의 부족이라는 면에서는 혼미 지위와 그 속성을 같이하고 또 위기의 경험 측면에서는 성취 지위와 그 속성을 같이하기 때문에 유예 지위 문항들이 다소 혼합된 양상을 보여 내적 합치도 계수가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신행우, 2001). 본 연구에서도 유예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43$ 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 성취는 .82, 유실은 .77, 혼미는 .64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척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질문지는 Soenens와 Vansteenkiste(2007)가 개발한 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DAPC)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10문항)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10문항) 두 가지 하위요인의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의 문항의 예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아버지(어머니)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내신다’를,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문항 예로는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내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신다’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심리적 통제 척도 각 문항들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가 각각 Cronbach $\alpha = .88, .86$ 이었으며,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각각 $\alpha = .92, .90$ 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울성향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우울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 성격으로 우울한 성격적 특성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Blatt, D'Afflitti, & Quinlan(1976)이 개발한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Adolescent Version(DEQ-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묘사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우울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Blatt 등(1976)은 우울성향을 '의존성' '자아비난' '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추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 그리고 우울과 관련이 있는 자아비난과 의존성 요인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박성연 등, 2008; 이은경, 박성연, 2010; Blatt & Homann, 1992; Soenens & Vansteenkiste, 2007).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의존성(24문항)과 자아비난(8문항) 요인의 문항내적 일치도는 각각 Chronbach's $\alpha = .85$ 와 $\alpha = .70$ 이었다.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을 사용하였다. CES-D는 모두 20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일주일 동안 일어난 빈도를 측정하여 '거의 없었음(0점)'에서부터 '대부분 그랬음(3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을 의미한다. Radloff(1977)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국내에서 시행된 표준화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모두 상이한 요인구조를 보이고 있다(배성우, 신원식,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전방법은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Promax로, 요인추출방법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내용의 요약율 목적으로 하는 공통요인모형인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하였다(이순목, 2000). 그 결과 제1 요인에는 주로 우울하다고 느끼고, 외롭고, 슬프고, 자꾸 눈물이 나는 등에 관한 12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우울한 감정'으로 명명하였다. 제2 요인에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만큼은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미래에 대해 희망차게 평가하는 긍정적인 평가내용에 관한 4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역부호화하여 '부정적 평가'로 명명하였다. 제3 요인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주의집중하기가 어렵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의 내용에 관한 4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둔화된 행동'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15문항이 최종적으로 사용되었으며 Chronbach α 를 이용한 우울한 감정의 신뢰도는 .83, 부정

적 평가 및 둔화된 행동은 각각 .78, .7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사용하였다. 원래 Rosenberg(1965)의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4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1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Barber, 1990; Hagborg, 1993; Owens, 1993; Rosenberg, 1979; Tafarodi & Swann, 1995)에서는 이 척도가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공유치(communalities)가 .40 이하인 8번 문항을 삭제하고 Scree Plot를 참고하여 2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였다. 제 1요인에는 ‘나는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등의 내용으로 6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가치감’으로 명명하였다. 2요인에는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자신의 능력에 관한 부정적인 문항의 내용으로 3문항이 포함되어있으나 이를 역부호화하여 ‘유능감’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와 .86 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자료수집을 위해, 임의로 선정한 서울과 수도권권 2개의 고등학교와 6개의 대학에 질문지

를 배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총 350부(회수율 93%)와 대학생의 경우는 총 224부(회수율 74.9%)가 회수되었다. 이들 자료 중 양친이 제시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및 이상치(Outlier)가 있는 자료들을 제외하고 고등학생은 총 275부, 대학생은 총 183부의 자료가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SPSS 16.0을 이용하여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집단 분류를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나타난 두 집단에서 각 변인들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또한 AMOS 7.0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집단 동일성 검증과 함께, 두 집단 모델의 적합도¹⁾, 경로계수, 인과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III. 결과분석

1) 모형의 χ^2 값은 표집의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χ^2 값을 고려하는 동시에 GFI(goodness of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fit index)를 고려함. GFI와 TLI, CFI는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는데 .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 RMSEA는 .05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모형(close fit)으로 해석되며, .08 이하이면 괜찮은 모형(reasonable fit), .10 이하는 보통모형(mediocre fit), .10 초과는 나쁜 모형(unacceptable fit)으로 받아들여짐(김계수, 2007; 홍세희, 2007; Hu & Bentler, 1999).

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집단 분류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4가지 지위 유형 즉 정체감 성취, 유예, 유실, 혼미를 범주 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을 유형화하기 위해 동질적인 집단을 묶어주는 방법으로 K-means 군집분석(DiStefano & Kamphaus, 2006)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두 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군집 1에는 정체감 성취($M=3.47$)와 유예($M=2.80$)의 점수가 높고, 유실($M=2.17$)과 혼미($M=2.55$)의 점수가 낮은 집단으로 총 207명의 청소년이 포함되었으며 반면에 군집 2에는 정체감 혼미($M=3.60$)와 유예($M=3.07$)의 점수가 높고 성취($M=2.69$)와 유실($M=2.06$)의 점수가 낮은 총 251명의 청소년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군집 1을 자아정체감에 대한 ‘목표지향적인 집단’으로 군집 2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한편, 두 집단에서 각 잠재변인의 평균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우울성향($t=-5.050$, $p<.001$)과 우울($t=-2.893$, $p<.01$) 점수에서는 목표지향적인 집단보다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나, 반면 자아존중감($t=7.143$, $p<.001$)은 목표지향적인 집단이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연구모형의 차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통해 나타난 자아정체감에 대해 목표지향적인 집단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다집단 동일성 검증과 두 집단에서 경로계수와 인과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목표지향적인 집단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 간의 연구모형의 동일성 검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의한 집단에 따라 각각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 자아존중감에서의 잠재변인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잠재변인의 평균 차이가 연구모형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우선, 비제약모형과 회귀계

표 1.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른 집단분류

($N=458$)

정체감발달	1집단($N=207$)	2집단($N=251$)	F	df
성취	3.47	2.69	246.1215***	1
유예	2.80	3.07	37.76824***	1
유실	2.17	2.06	3.975651*	1
혼미	2.55	3.60	519.8669***	1

* $p<.05$, *** $p<.001$

표 2. 목표지향적인 집단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의 잠재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58$)

잠재변인	비교집단(N)	평균	표준편차	t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목표지향(207)	1.83	0.57	-.35
	혼란경험(251)	1.85	0.58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목표지향(207)	1.78	0.53	-.108
	혼란경험(251)	1.83	0.50	
우울성향	목표지향(207)	3.84	0.60	-5.06***
	혼란경험(251)	4.13	0.63	
우울	목표지향(207)	0.80	0.50	-2.89**
	혼란경험(251)	0.94	0.49	
자아존중감	목표지향(207)	3.19	0.48	7.14***
	혼란경험(251)	2.86	0.50	

** $p < .01$, *** $p < .001$.표 3. 목표지향적인 집단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연구모형의 동일성 검증 ($N=458$)

모형	모수	χ^2	df	GFI	TLI	CFI	RMSEA (LO90~HI90)	AIC	ECVI
A	64	122.066	72	.954	.960	.975	.042(.030~.054)	250.066	.548
B	58	135.307	78	.949	.958	.972	.043(.031~.054)	251.307	.551
C	51	138.307	85	.947	.964	.973	.039(.028~.050)	240.307	.527
D	22	2270.235	110	.418	.000	.000	.208(.200~.215)	2314.235	5.075
A:B	$\chi^2_B - \chi^2_A = 13.240$		$df_B - df_A = 6$		$p = .039 < p = .05$				
A:C	$\chi^2_C - \chi^2_A = 16.241$		$df_C - df_A = 13$		$p = .236 > p = .05$				
B:C	$\chi^2_C - \chi^2_B = 3.001$		$df_B - df_A = 7$		$p = .885 > p = .05$				

주A: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

B: 측정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C: 공분산 제약모형(Constrained Model: Structural Covariance)

D: 포화모형(Independence Model)

수가 동일하다는 측정제약모형을 비교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악화되었음이 발견되었다(A:B $\rightarrow \Delta\chi^2 = 13.240$; $\Delta df =$

6; $p = .039 < .05$). 그러나 비제약모형과 구조공분산 제약모형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제약모형은 제약 이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다($A:C \rightarrow \Delta\chi^2=16.241$; $\Delta df=13$; $p=.236$, 표 3 참조). 따라서 본 연구 이론모형이 자아정체감에 대해 목표지향적인 집단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 간에 경로계수의 차이는 있으나, 모형의 구조적인 관계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목표지향적인 집단의 구조적 관계

자아정체감에 대해 목표지향적인 집단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구조적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의 측정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아정체감에 대해 목표지향적인 집단(207명)에 적용한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는 적합도 지수 $\chi^2=60.120$ (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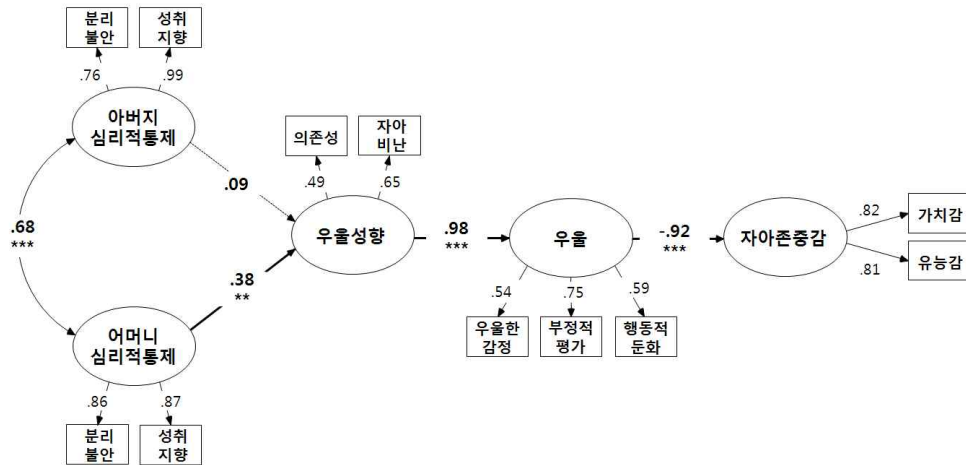
$=37$)이고, $GFI=.949$, $TLI=.961$, $CFI=.975$ 모두 .900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으며, 모형의 복잡성을 검토하는 RMSEA 역시 .059로 기준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목표지향적인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목표지향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의 계수가 유의확률 .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성향에 이르는 경로의 추정치는 .383이었고, 우울성향이 우울에 이르는 추정치는 .978이었으며, 우울이

표 4. 목표지향적인 집단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207$)

모수	<i>B</i>	β	<i>SE</i>	<i>CR</i>	<i>p</i>
아버지심리통제 $\rightarrow$ 우울성향	.070	.088	.083	.834	.404
어머니심리통제 $\rightarrow$ 우울성향	.281	.383	.091	3.082	**
우울성향 $\rightarrow$ 우울	.982	.978	.191	5.148	***
우울 $\rightarrow$ 자아존중감	-1.079	-.920	.152	-7.106	***
아버지심리통제 $\rightarrow$ 분리불안	1.000	.757			
아버지심리통제 $\rightarrow$ 성취지향	1.456	.985	.149	9.782	***
어머니심리통제 $\rightarrow$ 분리불안	1.000	.859			
어머니심리통제 $\rightarrow$ 성취지향	1.089	.867	.090	12.130	***
우울성향 $\rightarrow$ 의존심	1.000	.493			
우울성향 $\rightarrow$ 자아비난	1.441	.652	.252	5.708	***
우울 $\rightarrow$ 우울한 감정	1.000	.543			
우울 $\rightarrow$ 부정적 평가	1.405	.748	.195	7.213	***
우울 $\rightarrow$ 둔화된 행동	.988	.589	.115	8.599	***
자아존중감 $\rightarrow$ 가치감	1.000	.820			
자아존중감 $\rightarrow$ 유능감	1.234	.812	.109	11.359	***

** $p<.01$, *** $p<.001$



주: 오차항 생략

** $p < .01$, *** $p < .001$.

그림 1. 목표지향적인 집단에서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추정치는 -.920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1 참조).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대해 목표지향적인 집단인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우울성향을 많이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울을 느끼면서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표지향적인 집단의 연구 모형에서 경로의 인과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총효과를 분석하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효과성 분해에 제시된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Sobel Test²⁾와 Bootstrapping³⁾ 방법을 사용하였다.

2) Sobel test에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분모의 S_a 와 S_b 는 각각 추정치 a 와 b 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a

그 결과 외생변인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간접 영향($\beta = -.345$,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은 우울성향을 많이 갖게 되고($\beta = .383$, $p < .05$), 이로 인해 우울을 느끼게 되며($Z = 2.647$, $p < .01$; $\beta = .375$, $p < .05$),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beta = -.920$, $p < .01$). 또한,

=.05 수준에서 Z_{ab}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홍세희, 2007).

$$\text{Sobel test: } Z_{ab} = \frac{ab}{\sqrt{b^2 S_a^2 + a^2 S_b^2}}$$

3) Amos 프로그램에서 간접효과의 유의확률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Bootstrapping은 추정치를 k 번 반복 추정하여 분포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이므로 소위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추정변인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정확한 미지수의 계산이 가능)과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김계수, 2007).

표 5. 목표지향적인 집단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 분해

(N=207)

모수	Sobel	Bootstrapping		
	Z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우울성향		.088		.088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우울성향		.383*		.383*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우울	.843		.086	.086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우울	2.647**		.375*	.375*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자아존중감			-.079	-.079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자아존중감			-.345*	-.345*
우울성향 → 우울		.978**		.978**
우울성향 → 자아존중감	-4.164***		-.901**	-.901**
우울 → 자아존중감		-.920**		-.920**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 = .978$, $p < .01$), 자아존중감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Z = -4.164$, $p < .001$; $\beta = -.901$, $p < .01$)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의 구조적 관계

자아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251명)에 적용한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는 $\chi^2 = 66.167(df=37)$ 이고, GFI=.954, TLI=.957, CFI=.973 모두 .90 이상의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고, 모형의 복잡성을 검토하는 RMSEA 역시 .060으로 기준치에 부합하는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에도 적용할 수는 있는 타당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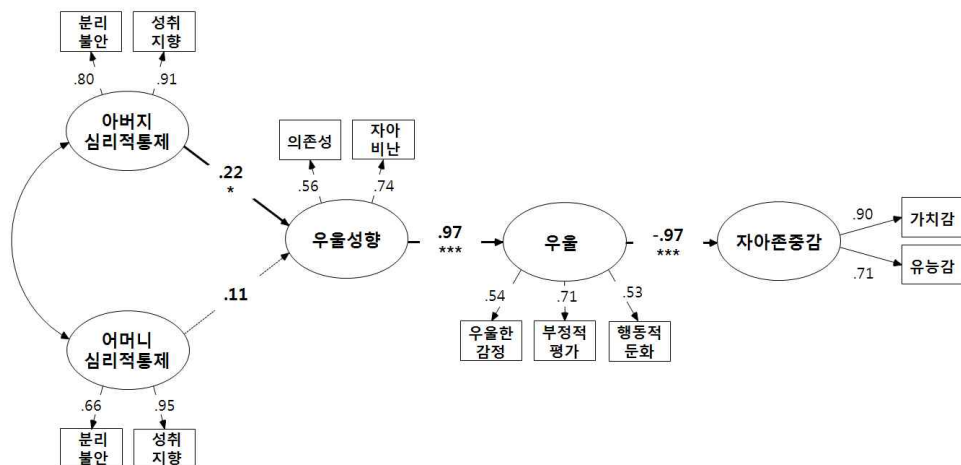
한편,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251명)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아

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목표지향적인 집단과는 달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간 경로의 계수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우울성향에 대한 경로의 추정치는 .222이었고, 우울성향이 우울에 이르는 추정치는 .974이었으며,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추정치는 -.974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의 청소년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심하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은 우울성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우울을 느끼면서 자아존중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표 6, 그림 2 참조).

표 6.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251)

모수	B	β	S.E	C.R	P
아버지심리통제 → 우울성향	.191	.222	.093	2.057	*
어머니심리통제 → 우울성향	.125	.109	.118	1.058	.290
우울성향 → 우울	.767	.974	.126	6.108	***
우울 → 자아존중감	-1.382	-.974	.164	-8.425	***
아버지심리통제 → 분리불안	1.000	.804			
아버지심리통제 → 성취지향	1.281	.906	.107	11.966	***
어머니심리통제 → 분리불안	1.000	.660			
어머니심리통제 → 성취지향	1.564	.950	.188	8.329	***
우울성향 → 의존심	1.000	.555			
우울성향 → 자아비난	1.401	.735	.192	7.313	***
우울 → 우울한 감정	1.000	.535			
우울 → 부정적 평가	1.662	.706	.212	7.857	***
우울 → 둔화된 행동	1.078	.528	.136	7.954	***
자아존중감 → 가치감	1.000	.897			
자아존중감 → 유능감	1.027	.709	.086	11.976	***

* $p < .05$, *** $p < .001$.

주: 오차항 생략

* $p < .05$, *** $p < .001$

그림 2.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

표 7.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 분해

(N=251)

모수	Sobel	Bootstrapping		
	Z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우울성향		.222*		.222*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우울성향		.109		.109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우울	1.970*		.216*	.216*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우울	1.043		.107	.107
아버지 심리적 통제 → 자아존중감			-.211*	-.211*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자아존중감			-.104	-.104
우울성향 → 우울		.974**		.974**
우울성향 → 자아존중감	-4.934***		.949**	.949**
우울 → 자아존중감		-.974**		-.974**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경로의 인과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 모형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간접 영향($\beta = -.211$, $p < .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은 우울성향을 많이 갖게 되며($\beta = .222$, $p < .05$), 우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Z = 1.970$, $p < .05$; $\beta = .216$, $p < .05$). 그리고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beta = .974$, $p < .01$), 자아존중감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Z = -4.934$, $p < .001$; $\beta = -.949$, $p < .01$)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은 자아존중감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beta = -.974$, $p < .01$)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부가적으로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라 목표지향 집단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 내에서 성과연령에 따라 이론모형의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청소년의 성과연령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연교차타당성을 확보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한 성향,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집단에 따른 연구변인들

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은경과 박성연(2010)의 이론모형에서 나타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한 성향, 우울간의 구조적 관계가 자아정체감 지위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주요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을 규명하기 위해 자아정체감의 4가지 유형 즉 정체감 성취, 유예, 유실, 혼미를 범주 변인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를 유형화한 결과, 정체감 성취와 유예가 높은 군집 1(목표지향적인 집단)과 정체감 혼미와 유예가 높은 군집 2(혼란을 경험하는 집단)로 분류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특히 흥미로운 점은 두 집단 모두 정체감 유예 지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감 유예 지위가 적극적인 관여(commitment) 또는 몰입(involvement)의 부족이라는 면에서는 혼미 지위와 공통점이 있는 한편, 위기의 경험 측면에서는 성취 지위와 그 속성을 같이하는 유예 지위의 본래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신행우(200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Archer(1992)가 주장하였듯이 긍정적인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유예-성취-유예-성취(MAMA)라는 양상이 있으며, 정체감이 성취된 후에도 계속 이러한 순환이 생을 통해 반복된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Al-Owida 등은(2009) Marcia(1967)가 주장하는 자아정체감 지위 발달은 자아정체감 혼미로부터 유실, 유예를 거쳐 성취해내는 순서로 발달할 뿐만 아니라 혼미, 유실, 성취, 혼미의 순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자아정체감 발달

에서 두 가지의 유형을 보이는 원인은 유예와 성취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Berzonsky(2004)의 정체감 분류에 의하면, 정보적 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체감 이슈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활용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자아정체감 성취나 유예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성취집단과 유예집단으로 각각 구분하기보다는 성취와 유예 점수가 높은 집단은 자아정체감에 대해 목표지향적인 집단으로 나타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혼미와 유예 점수가 높은 집단이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구별된 것은 청소년들이 비록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규정하는 역할들과 가치에 깊이 관여 또는 몰입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이 단지 혼미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적합한 잠재적인 직업 역할들과 이념적 가치들을 탐색하거나 시험해보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유실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정체감 유실 지위에 있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통제적인 부모와 극도로 밀착되어 있어 부모로부터 언제든지 거부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부모의 권위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갖거나 부모와의 개별화나 독립된 정체감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Luyckx et al.,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자아정체감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보다 목표지향적인 집단에서 유실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자애와 효를 바탕으로 한 감정, 의식 동일

체적 친애관계가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이장주(200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처럼 분리와 독립으로 자신의 고유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보다는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군집분석의 결과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 잠재변인들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에서 자아정체감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이 목표지향적인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에서는 목표지향적인 집단이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정체감 확립에 실패한 청소년은 자기 회피, 역할 혼미를 경험하게 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면서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Erikson(1968)과 Lee(2003)의 연구 및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Marcia (1967), Mruk(2006)의 연구를 지지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성취하기 위한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더욱 부적응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이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 2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 모형의 구조적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집단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아정체감에 대

한 목표지향적인 집단과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 간에서 경로의 측정계수 차이는 있었으나 선행연구(이은경, 박성연, 2010)에서 밝혀진 구조적 관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정체감 지위와 관계없이 심리적 통제가 우울성향 및 우울을 거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는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를 자아정체감 유형 집단 별로 살펴보면 목표지향적인 집단의 경우, 연구모형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압적으로 심리적 통제를 행사하는 독재적인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정체감을 찾으려 탐색을 방해하고 정체감 유실에 이르게 한다는 Luyckx 등(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온정성이나 독립심 격려 부족은 정체감을 성취하기 위한 탐색을 저해하게 한다. 특히 자아정체감에 대한 목표지향적인 집단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만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유아기 애착 대상자가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주지만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체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한 이은희와 정순옥(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즉, 아무리 자아정체감을 성

취한 청소년들일지라도 어머니의 지시적이고 간섭적이며 과보호적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립, 독립, 부모로부터 분리를 허용하지 않아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아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만이 청소년의 우울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박순희(2003)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일체감이 높을수록 주체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감 등의 자아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던 최명선과 문은미(2009)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서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의 청소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행동 간의 관계는 저소득층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만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Bean, Bush, McKenry 및 Wilson(2003)의 연구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Bean 등(2003)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일반적이며 습관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청소년들이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동일시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를 많이 받는 아프리카계 미국 청소년들은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즉, 자아정체감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이 많지 않은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통제하거나 비난할 때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 양육행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전춘애 등(2008)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들은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되며, 아버지의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아버지 영향력이 특히 자아정체감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가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자아정체감에 대해 목표지향적인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우울을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 성향 및 우울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

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행동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나, 특히 자아정체감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행동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기보고 자료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오류가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횡단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역할은 어머니이므로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지만,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청소년의 동일시 모델이 되는 아버지 양육행동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경로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지위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07). NEW AMOS 16.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형태 (198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매니저맘’ 시대 ‘헬리콥터 맘’ ‘매니저 맘’으로 진화 (2011.7.19). 헤럴드경제신문, 인터넷 발췌.
- 박성연, 이은경, 송주현 & Soenens, B. (2008). 부모의 심리적 통제유형이 청소년의 의존심, 자아비난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65-78.
- 박순희 (2003). 여자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이승국 (2000). 청소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교육학논총, 20(2), 256-282.
- 배성우, 신원식 (2005). CES-D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의 적용.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 손보영, 정남운 (2006). 자기 비판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 패턴: CCRT 방법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21-45.
- 신행우 (2001).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EOM-EIS2)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37-152.
- 이강이 (2002). 가정의 소득수준과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67-76.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경, 박성연 (2010).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우울성향 및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87-

- 106.
- 이은희, 정순옥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공변량 구조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7(2), 213-239.
- 이장주 (2002). 부자유친성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지연 (2006).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영적 안녕 감의 차이: 성별과 종교 유무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춘애, 박철옥, 이은경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 *한국상담학회*, 9(2), 709-726.
- 정옥호 (199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지위와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신일전문대학논문집*, 10(1), 300-318.
- 최명선, 문은미 (2009).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 16(1), 165-177.
- 홍세희 (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dams, G. R., Berzonsky, M. D., & Keating, L. (2006). Psychosocial resources in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The role of identity processes and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1), 81-91.
- Adams, G. R., Dyk, P. A. H., & Bennion, L. D. (1987).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identity formation. *Family Perspective*, 21, 249-260.
- Al-Owida, A., Green, K. E., & Kroger, J. (2009). On the question of an identity status category order: Rasch model step and scale statistics used to identify category 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3(1), 88-96.
- Archer, J. (1992). Childhood gender roles: Social context and organisation. In H. McGurk(Ed.),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Contemporary Perspectives*(pp.31-61). Hove, England: Erlbaum.
- Balistreri, E., Busch-Rossnagel, N. A., & Geisinger, K. F. (1995).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Ego Identity Process Questionnaire. *Journal of Adolescence*, 18(2), 159-177.
- Barber, B. K. (1990). Marital quality, parental behaviours, and adolescent self-esteem. In: B. K. Barber & B. C. Rollons (ed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pp. 49-75).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affects children &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tle-Haring, S., Brucker, P., & Hock, E. (2002). The Impact of Parental Separation Anxiety on Identity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7(5), 439-450.
-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 Wilson, S. M. (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523-541.
- Bennion, L. D., & Adams, G. R. (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 Berzonsky, M. D. (2004). Identity processing style, self-construction, and personal epistemic assumptions: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 303-315.
- Blatt, S. J. (2004). *Experiences of depression: Theoretical, clin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 Blatt, S. J., & Homann, E. (1992). Parent-child interaction in the etiology of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47-91.
- DiStefano, C., & Kamphaus, R. W. (2006). Investigating subtypes of child development. *Educational & Psychological Measurement*, 66(5), 778-795.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Selected Papers.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Hagborg, W. J. (1993).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d Harter's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A concurrent validity study. *Psychology in Schools*, 30, 132-136.
- Hamer, R. J., & Bruch, M. A. (1994). The role of shyness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in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4), 436-452.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ee, J. S. (2003). *The influences of melancholia and self identity of youth on the contemplated suicide of youths*. Myongji University. master's thesis.
- Luyckx, K., Soenens, B., Vansteenkiste, M., Goossens, L., & Berzonsky, M. D., (2007).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mensions of identity formatio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 546-550.
- Marcia, J. E. (1967). Ego identity status: relationship to change in self-esteem, general maladjustment, and authoritarianism. *Journal of Personality*, 35, 118-133.
- Marcia, J. E. (1993). The ego identity status approach to ego identity.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Eds.),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Mruk, C. J. (2006).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 practice: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self-esteem*(3th ed.). New York; Springer.
- Owens, T. J. (1993). Accentuating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Rethinking the use of self-esteem, self-deprecation, and self-confide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 288-29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artor, C., & Youniss,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arental involvement and identity achievement during adolescence. *Adolescence*, 37, 221-234.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7). Distinguishing among types of psychological control: Separation-anxious versus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In A. Assor (Chir), *Disentangling the construct of parental control: Conceptual and measurement issues*.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Child Development(SRCD), Boston.
- Soenens, B., Park, S. Y., Vansteenkiste, M., & Mouratidis, A. (in Pres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ve experiences: A cross-cultural study with Belgian and South-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 Tafarodi, R. W., & Swann, W. B., Jr. (1995). Self-liking and self-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 322-342.
- Vansteenkiste, M., Zhou, M., Lens, W., & Soenens, B. (2005). Experiences of Autonomy and Control Among Chinese Learners: Vitalizing or Immobiliz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3), 468 - 483.

1차 원고접수 : 2011. 10. 11

수정 원고접수 : 2011. 11. 15

최종 게재결정 : 2011. 12. 2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dolescents' Depressive Experiences, Depression, and Self-esteem and the Importance of Self-Identity Status

Lee, Eun-Gyoung

Human Ecology &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Park, Seong-Y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plore whether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eparation-anxious &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depressive experiences (dependent & self-criticism depressive experience), depression, and self-esteem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tatus of an adolescents' self-identity.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458 adolescents recruited from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Mage=17.4$ yrs; $SD=1.75$)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for the adolescents. Our results revealed that in the group whose self-identity status was goal-oriented,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hampered their self-esteem, however, in the case of the group whose self-identity status was experiencing diffusion, fathers' psychological control tended to obstruct their self-esteem. These findings underscored the differential pathway of both the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role and influences upon the development and attainment of adolescent self-identity.

Key words : self-identity, psychological control, depressive disposition, depression, self-esteem